

농약이 자살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는 실태조사

제 미 순 (경상대학병원)

〈目 次〉

I. 서 론	V. 결 론
II. 조사대상 및 방법	참고문헌
III. 조사결과	영문초록
IV. 고 찰	

I. 서 론

오늘날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 농약만큼 그 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한 것은 없다. 그러나 농약의 과다사용과 오용 등으로 인해 그 피해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약 사용량은 연간 농약출하량의 규모로 어느 정도 근사치를 추정할 수 있는데, 1984년 이후의 출하량 통계들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서 최근에는 연간 약 23,000ton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농촌 1가구당 농약 사용량(출하량)은 1984년 8.46kg이던 것이 5년 후인 1989년에는 13.14kg으로 55%나 증가하였다.¹⁾

이처럼 늘어나는 농약사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에는 1) 병충해의 농약에 대한 저항성 및 천적의 감소 등 농업적인 문제, 2) 사용자의 부주의나 사고로 인한 농약중독과 환경오염을 통한 인체내 농약축적 및 이로 인한 만성적 피해 등 보건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농약으로 인한 인체피해 정도를 인구동태신고에 의한 사망신고 자료를 가지고 추정해 보면 매년 1,200~1,5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망자 중 많은 수가 자살목적의 고의적 오용이 원인이 되고 있어 일차적 예방의 관점에서도 여러 측면의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나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부 경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약물중독환자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농약이 다른 약품보다 자살목적으로 손쉽게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88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에 걸쳐 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

한 급성약물중독환자 총 334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이들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조사작성하였다.

Ⅲ. 조사결과

1. 연도별 분포

각 연도별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급성약물중독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8년도에는 총 3,397명 중 56명으로 1.6%, 1989년에는 총 6,007명 중 109명으로 1.8%, 1990년에는 총 8,082명 중 169명으로 2.1%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2.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전체 약물중독자 334명 중 남자가 178명, 여자가 156명으로 남녀의 비는 1.14 : 1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20.6%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19.1%, 50대가 18.3%, 60세 이상이 16.5%를 각각 나타내었다(표 1).

〈표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연령\성	남	여	합계(%)
0~9	12	4	16(4.8)
10~19	13	15	28(8.4)
20~29	29	35	64(19.1)
30~39	26	33	69(20.6)
40~49	24	17	41(12.3)
50~59	41	20	61(18.3)
60이상	33	22	55(16.5)
합 계	178	156	334(100.0)

3. 월별 및 계절별 분포

월별 분포에서는 5,6,7,8,9월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절별 분포에서는 여름이 가장 높아 전체의 34.8%, 다음이 가을순으로 30.5%를 나타내었다(표 2).

〈표 2〉 월별 및 계절별 분포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환자수	14	17	18	22	35	41	41	34	48	25	29	10	334
계 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합계
	(3,4,5월)			(6,7,8월)			(9,10,11월)			(12,1,2월)			
환자수(%)	75(22.5)			116(34.8)			102(30.5)			41(12.2)			334(100.0)

4. 연령별 중독사유

연령별 중독사유를 보면 0~9세의 경우는 사고로 인한 것이 100%이나 그외의 연령군에서는, 구체적인 사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전체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연령군을 대상으로 중독사유의 분포를 보면, 자살목적이 80.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우발적 사고가 15.6%, 농약살포로 인한 중독이 3.0%,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0.6%로 나타내었다(표 3).

고 있다. 전체 연령군을 대상으로 중독사유의 분포를 보면, 자살목적이 80.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우발적 사고가 15.6%, 농약살포로 인한 중독이 3.0%,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0.6%로 나타내었다(표 3).

〈표 3〉 연령별 중독사유

연령	중독사유			우발적 사고	농약살포	미 상	합계(%)
	주위사람과 말다툼후	자 살 목 적 경제적 이 유	기 타 이 유				
0~9				16(100.0)			16(100.0)
10~19	8(28.6)		17(60.7)	2(7.1)	1(3.6)		28(100.0)
20~29	29(44.6)		32(49.3)	3(4.6)	1(1.5)		65(100.0)
30~39	29(42.0)	3(4.4)	25(36.2)	8(11.6)	3(4.4)	1(1.4)	69(100.0)
40~49	21(51.2)	1(2.4)	16(39.1)	1(2.4)	2(4.9)		41(100.0)
50~59	19(30.7)	3(4.9)	27(43.5)	10(6.1)	3(4.8)		62(100.0)
60이상	13(24.5)	1(1.9)	26(49.1)	12(22.7)	1(1.9)	1(1.9)	53(100.0)
합 계	119(35.6)	8(2.4)	143(42.8)	52(15.6)	10(3.0)	2(0.6)	334(100.0)

5. 중독약물의 종류

중독약물의 종류는 화학약품이 9.9%, 의학약품이 14.1%, 농약이 74.9%로 농약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각 연도별 분포도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표 4).

연령별 중독약물의 종류를 보면, 0~9세의 경우에는 화학약품이 43.8%로 가장 높고 다음이 농약

으로 31.2%, 그리고 의학약품이 25.0%를 보이고 있으나 10세이상의 경우에는 농약에 의한 중독이 평균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5).

다음으로 자살목적으로 쓰여진 약물의 분포를 보면, 총 270명 중 220명인 81.5%가 농약을, 30명인 11.1%가 의학약품, 18명인 6.7%가 화학약품을 자해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표 6).

〈표 4〉 연도별 중독약물의 종류

연도 \ 중독약물	화학약품	의학약품	농 약	미 상	합 계(%)
1988	3(5.3)	8(14.3)	43(76.8)	2(3.6)	56(100.0)
1989	13(11.9)	14(12.9)	82(75.2)		109(100.0)
1990	17(10.0)	25(14.8)	125(74.0)	2(1.2)	169(100.0)
합계	33(9.9)	47(14.1)	250(74.9)	4(1.1)	334(100.0)

〈표 5〉 연령별 중독약물의 종류

연도 \ 중독약물	화학약품	의학약품	농 약	미 상	합 계(%)
0~9	7(43.8)	4(25.0)	5(31.2)		16(100.0)
10~19	2(7.1)	2(7.1)	23(82.2)	1(3.6)	28(100.0)
20~29	4(6.2)	18(27.7)	43(66.1)		65(100.0)
30~39	8(11.6)	10(14.5)	51(73.9)		69(100.0)
40~49	2(4.9)	2(4.9)	37(90.2)		41(100.0)
50~59	4(6.5)	7(11.3)	49(79.0)	2(3.2)	62(100.0)
60이상	6(11.3)	4(7.5)	42(79.3)	1(1.9)	53(100.0)
합 계	33(9.9)	47(14.1)	250(74.0)	4(1.2)	334(100.0)

〈표 6〉 자살목적으로 쓰여진 약물 종류별 환자수

약물종류	환자수(%)
화학약품	18(6.7)
의학약품	30(11.1)
농 약	220(81.5)
미 상	2(0.7)
합 계	270(100.0)

6. 약물 종류별 재원 일수 및 치료 결과

약물중독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재원 일수를 보면, 1일이하의 체류는 화학약품에 의한 중독이 69.7%, 의학약품에 의한 것이 85.1%로 나타난 반면 농약에 의한 중독은 52.0%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2일이상 즉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 8일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22.0%나 된다(표 7).

다음으로 약물종류별 치료결과를 보면, 치유된 사례는 화학약품중독이 72.7%, 의학약품중독이 93.6%, 농약중독이 54.4%를 각각 타나내고 있으며 사망 사례는 화학약품중독이 15.1%, 의학약품중독이 4.3%, 농약중독이 35.2%를 나타내고 있다. 〈표 8〉에서 농약의 경우에 미상으로 되어 있는 23명 중에는 제초제의 일종인 Gramoxone을 먹은 것이 확실시 되어 귀가시킨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통상 Gramoxone은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까지 포함시키면 실제의 사망 비율은 35.2%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8).

치료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모두 우발적 사고였던 0~9세의 경우는 100%가 치유되었으나 10대에서는 55.6%가 치유되고 25.9%가 사망, 20대에서는 71.2%가 치유되고 19.7%가 사망, 30대에서는 63.6%가 치유되고 24.6%가 사망, 40대에서는 56.

1%가 치유되고 36.6%가 사망, 50대에서는 56.5%가 치유되고 30.6%가 사망, 그리고 60세이상에서는 41.5%가 치유되고 49.1%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7〉 약물 종류별 자원 일수

약물종류 \ 자원일수	1일이하	2~7	8~14	14일이상	합 계(%)
화 학 약 품	23(69.7)	6(18.2)	3(9.1)	1(3.0)	33(100.0)
의 학 약 품	40(85.1)	6(12.8)	1(2.1)		47(100.0)
농 약	130(52.0)	65(26.0)	24(9.6)	31(12.4)	250(100.0)
미 상	4(100)				4(100.0)
합 계	197(59.0)	77(23.0)	28(8.4)	32(9.4)	334(100.0)

〈표 8〉 약물 종류별 치료결과

약물종류 \ 치료결과	치 유 됨	사 망	미 상	전 송	합 계(%)
화 학 약 품	24(72.7)	5(15.1)	2(6.1)	2(6.1)	33(100.0)
의 학 약 품	44(93.6)	2(4.3)	1(2.1)		47(100.0)
농 약	136(54.4)	88(35.2)	23(9.2)	3(1.2)	250(100.0)
미 상	2(50.0)	2(50.0)			4(100.0)
합 계	206(61.7)	97(29.0)	26(7.8)	5(1.5)	334(100.0)

〈표 9〉 연령별 치료결과

연 령 \ 치료결과	치 유 됨	사 망	미 상	전 송	합 계(%)
0~9	16(100.0)				16(100.0)
10~19	15(55.6)	7(25.9)	4(14.8)	1(3.7)	27(100.0)
20~29	47(71.2)	13(19.7)	6(9.1)		66(100.0)
30~39	48(63.6)	17(24.6)	2(2.9)	2(2.9)	69(100.0)
40~49	23(56.1)	15(36.6)	3(4.3)		41(100.0)
50~59	35(56.5)	19(30.6)	6(9.7)	2(3.2)	62(100.0)
60이상	22(41.5)	26(49.1)	5(9.4)		53(100.0)
합 계	206(61.7)	97(29.0)	26(7.8)	5(1.5)	334(100.0)

7. 자살목적에 의한 약물중독 중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던 환자수

자살목적에 의한 약물중독 중 실제로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환자수는 전체 334명 중 3.9%인 13명이었다. 여기에는 이전에 정신과를 방문하였던 사례, 입원 후 정신과에 의뢰가 되었던 사례, 입원하기 전에 주위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

고 했었다는 정보가 기록에 남아 있는 환자를 모두 포함시켰다.

IV. 고 찰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한 한국 자살자의 특성을 보면, 전체 자살자의 수가 인구 10만명당 평균 20.

76(1981), 22.00(1982), 19.98(1983)명으로 나와 있다. 이를 다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 본 결과 도시가 11.07(1981), 11.27(1982), 10.44(1983)명으로 집계된 반면, 농촌지역은 46.02(1981), 52.92(1982), 46.82(1983)명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자살율이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농촌지역(강화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자 조사를 한 유순형과 김일순(1981)의 보고와 그후 같은 지역에 대한 신승철 외(1989)의 보고를 보면, 70년대말 3년간의 자살율이 평균 44.6명인 반면 1979년부터 1987년까지의 자살율은 평균 48.65명으로 나타나 있다.³⁾ 자살은 한국의 10대 사망 요인 중 9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⁵⁾, 강화도지역의 사망보고체계를 통한 면밀한 사망조사 연구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0년까지 만 6년간 강화지역의 자살자 순위는 사망원인별 순위에서 뇌혈관 질환, 암 다음으로 많은 3번째로 되어 있다.⁶⁾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농촌지역에서의 자살문제는 일차적 예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시급히 요청되는 문제라 하겠다.

농촌을 배경으로 한 대학병원 규모의 통계가 없어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중 약물중독환자의 비율은, 농촌의료실태를 조사한 김 등의⁷⁾ 보고에 의하면 1979년에 1,802명 중 6.1%, 1980년에 2,215명 중 7.1%이며, 홍 등의⁸⁾ 보고에 의하면 1986~1987년에 2,708명 중 3.6%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1988년에 총 3,397명 중 1.6%, 1989년에 총 6,007명 중 1.8%, 1990년에 총 8,082명 중 2.1%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 위의 김 등, 홍 등의 비율보다 약간 낮게 나온 것은 인근 농촌지역에서 본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관계로 현지병원에서 해결되는 경우 본 병원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1976년 황 등의⁹⁾ 보고와 1978년 손 등의¹⁰⁾ 보고에 의하면, 급성중독환자의 연령분포는 20대가 50.7%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1989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홍 등의⁸⁾ 보고에 의하면 20대와 60대가 21.6%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의 자살동태를 연구한 신 등의⁴⁾ 보고에 의하면 60세이상의 노인층이 23%로 가장 높고, 20대는 19.4%였다. 이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30대가 20.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20대가 19.1%, 50대가 18.3%, 그리고 60세 이상이 16.5%였다. 60세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현지병원에서 응급조치후 본 병원까지 오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월별 분포는 5,6,7,8,9월이 대체로 높고 계절별로는 여름과 가을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홍 등⁸⁾ 신 등의⁴⁾ 조사성과 일치하고 있다. 대체로 전체 약물중독의 75%정도가 농약중독인 점을 감안할 때 농약이 쉽게 눈에 띄는 계절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중독사유를 보면 10세이상의 경우 대략 80%정도가 자살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보고된 조사성과²⁾⁷⁾⁸⁾ 비슷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주위사람과 말다툼을 한 후가 35.6%, 경제적 이유가 2.4%, 기타이유가 42.8%로 되어 있는데, 기타이유로는 10대의 경우 학교성적문제, 여자 또는 남자친구문제가 많았으며, 그밖의 연령층에서는 연인과의 불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기록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유순형과 김일순(1981)의 보고에 의하면 자살유발요인으로 생활고가 가장 높은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기창 등(1985)은¹¹⁾ 가정불화가 제일 많은 이유라고 보고하고 있다. 신승철 등(1989)은 생활고 21.7%, 가정불화 11%로 보고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들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생활고와 가정불화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기록상 명백한 경제적 이유는 2.4%에 불과하나 다른 사유의 저변에서 앞의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생활고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여러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다 자살을 목적으로 한 급성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이 전혀 없어 일반 수가의 비싼 치료비는 이들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1990년 11월 경상남도가 국회농림수산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¹²⁾ 의하면 경상남도내 26만2천가구의 농어가가 가구당 평균 4백4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88년 말보다 가구당 약 39%가 늘어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인구의 고령화라든가 우르파이 라운드 등 여타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농촌을 압박하고 있

는 실정을 감안할 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리고 중독원인물질에 대해서는 1963~1965년 3년동안 김 등의¹⁵⁾ 보고에는 의약품류가 68.4%, 농약류가 4%로 나타나 있고, 1975년 이 등의¹⁶⁾ 보고에는 의약품류가 31.2%, 농약류가 42.5%로 나타나 있으며, 1989년 홍 등의⁸⁾ 보고에는 농약류가 77.3%로 나타나 있다. 본 조사에서도 농약이 74.9%, 의학약품이 14.1%, 화학약품이 9.9%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60년대에 4%에 불과하던 농약에 의한 중독이 70년대 이후 급팽창하고 있는 것은 1970년 이후 barbiturate 등 수면제류가 습관성의약품으로 규제받기 시작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농약의 사용이 보편화된 것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발적 사고가 100%인 0~9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군에서 보면, 20대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66.1%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자살목적으로 약물중독된 총 270명 가운데 81.5%인 220명이 농약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의 자살에 관한 그동안의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3) 4) 14)} 농약이 자살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80% 이상임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농약이 주위에서 쉽게 구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약물중독의 중증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재원일수와 치료결과를 보면, 화학약품의 경우 33명 중 1일이하 체류가 22명으로 68.8%를 나타내고 있으며, 24명(72.7%)이 치유되고 5명(15.1%)이 사망했다. 의학약품의 경우 47명 중 1일이하의 체류가 40명으로 85.1%를 나타내고 있으며, 44명(93.6%)이 치유되고 2명(4.3%)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농약의 경우 250명 중 52.2%인 130명만이 1일이하의 체류였고 8일이상 입원치료한 경우도 55명으로 22.0%나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36명(54.4%)이 치유된 반면 88명(35.2%)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의 23명 중에는 Gramoxone을 먹은 것이 확실시 되어 귀가시킨 환자가 다수 섞여 있어 실제로 사망한 환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급성중독의 치명율은 본 조사에서 29.0%로 나타났는데 이는 1989년 홍 등의⁸⁾ 13.4%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화학약품이나 의학약품에 비해 농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본 조사나 홍 등의⁸⁾

조사보다 낮았던 유나¹⁷⁾ 조의¹¹⁾ 경우에는 치명율도 각각 5.4%, 4.0%로 낮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농약에 의한 중독이 화학약품이나 의학약품에 의한 중독보다 중증도가 더 심하며 높은 치명율을 가져온다는 것을 간접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연령별 치료결과를 보면, 우발적 사고로 약물중독된 0~9세의 경우에는 100%가 치유되었으며, 자살목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 10세이상의 경우, 20대의 사망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19.1%를 보인 반면, 60세이상의 고령의 경우 49.1%로 가장 높은 사망율을 보였다.

한편 급성중독의 이유 중 자살목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던 환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 보았다. 기록상 이전에 정신과를 방문하였던 사례, 입원 후 정신과에 의뢰가 되었던 사례, 입원하기 전에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했었다는 정보가 있는 사례들을 모두 포함시켜 조사했는데 그 결과 334명 중 3.9%에 해당하는 13명만이 실제로 정신과적 원인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살목적으로 농약을 복용한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협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농약이 농업부문에서 과다사용되고 있는 것과 함께 생활주변에서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정신과적인 원인이 아닌, 가정생활의 불화나 개인적 스트레스 등 사소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변에 합부로 널려있는 농약을 자살목적으로 복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V. 결 론

1988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에 걸쳐 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약물중독환자 총 334명을 대상으로 농약이 자살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약물중독환자는 3년간 총 응급실 내원환

자 17,486명 중 334명으로 전체의 1.9%였다.

2. 중독자의 남·여 성비는 1.14 : 1로 남자가 약간 많았으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2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20대 19.1%, 50대 18.3%, 60대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월별 분포는 5~9월이 보다 높았고, 계절별로는 여름(34.8%), 가을(30.5%)이 높게 나타났다.

4. 연령별 중독사유는 0~9세의 경우는 100%가 우발적인 사고였으며, 10세이상의 경우에는 자살목적 84.9%였다.

5. 중독약물의 종류는 농약이 74.9%로 매우 높았으며, 자살목적으로 약물에 중독된 270명 중 220명인 81.5%가 농약을 자해수단으로 선택했다.

6. 약물종류별 치료결과를 보면 치유는 화학약품이 72.7%, 의학약품이 93.6%, 농약이 54.5%였으며, 사망비율은 화학약품이 15.1%, 의학약품이 4.3%, 농약이 35.2%를 각각 보였다.

7. 자살목적에 의한 약물중독 중 기록상 정신과

적인 문제를 보인 환자수는 전체 334명 가운데 3.9%인 13명이었다.

인간은 일생동안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때로 죽음의 유혹을 느끼고 살아간다.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주민들, 그러나 이들의 주위에는 농약이라는 자해수단이 너무도 쉽게 눈에 띄고 있다. 게다가 농약이 자해수단이 된 경우에는 다른 약물에 비해 중증도도 심하고 사망율도 높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자면, 농업방법에 있어서도 농약의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과 자연농업 등 새로운 농업방법이 확산, 보급되어야 하겠지만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농약을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관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농약이 더이상 자살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최진수 : 농약으로 인한 질병의 역학적 양상, 농촌의학회 보고 자료, 1991.
2. 심영희 : 한국사회의 자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태, 정신건강연구 제4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p49~71, 1986.
3. 유순형, 김일순 : 한국도서지방(강화군)의 자살 기도에 대한 역학 및 정신 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0 : 266~277, 1981.
4. 신승철, 김소희, 황순택, 이호영 : 농촌지역(강화지역)의 자살에 관한 역학 연구, 대한의학협회지 32 : 1, 50~60, 1989.
5. 유동수 : 자살기도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7 : 352~363, 1978.
6. 이용호, 오희철, 김일순 : 강화지역 주민의 사망력 분석 : 1975~1980 한국역학회지 3권 1호 65~70, 1981.
7. 김훈교, 김승남 : 유기인제 농약중독의 임상적 관찰, 최신의학 24 : 4, 1981.
8. 홍찬길, 박은숙 : 급성약물중독에 관한 조사성적, 가정의 10 : 1, 1989.
9. 황두환, 김양일, 송강정, 남양일, 이창혜, 이학중 : 급성약물중독에 대한 임상적 관찰, 대한내과학회지잡지 19 : 9, 1976.
10. 손관수, 이증건, 이영만, 이경원 : 급성약물중독의 임상적 관찰, 대한내과학회잡지 21 : 9, 1978.
11. 조수현 : 급성약물중독에 관한 조사성적, 예방의학회지 10 : 1, 1977.
12. 이은주 : 급성약물중독환자의 임상적관찰, 전남의대잡지, 21 : 3.
13. 박기창, 한정옥, 유계준 : 횡성군에서의 자살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4 : 2, 285~293, 1985.
14. 중앙일보 제7805호 1990.12.1일자 부산, 경남판 기사.
15. 김청일, 김용태, 김광섭, 노병호 : 급성약물중독에 관한 임상적 관찰, 대한내과학회잡지 19 : 5, 1976.
16. 이성근, 오시종, 육중선, 김승원, 이근배, 송창섭 : 급성약물중독에 대한 임상적 관찰, 대한내과학회잡지 21 : 11, 1978.
17. 유태우 : 급성중독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 가정의잡지 4 : 2.

〈ABSTRACT〉

A Study on the Misuses of Pesticides for Suicides

Mi-Soon Je, R.N.(Gyungsang University Hospital)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34 cases of the acute drug intoxication visited to the emergency room of Gyungsang University Hospital for 3 years from January 1, 1988 to December 31, 199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ratio of acute drug intoxicated patients to total patients of the emergency room was 1.9%.
2. Male was slightly more than female(1.14 : 1). The highest rate was shown in the age group of 30 years.
3. The monthly incidence was higher at the period from May to September.
4. The suicidal attempts ratio of the patients over 10 years old was 84.9%.
5. 74.9% of total cases were intoxicated with pesticides.

Among 270 cases who had committed suicide, 220 cases(81.5%) had ingested pesticides.

6. The fatality rate among cases of pesticides intoxication was 35.2%, among chemical intoxication 15.1% and among medical drug intoxication 4.3%.
7. 13 cases(3.9%) of 334 cases showed the psychological problem on chart.